시선

사설

구성원 앞에 별안간 던져진 '미래창조스쿨'

지난 제1605호 사설에서 우리신문은 당시 갓 출범한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혁신위)'를 향해 '제 구성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밀하게 이뤄지는' 상향식 의사소통구조를 주문한 바 있다. 그간 우리학교가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리더십의 결정을 구성원에게 통보하는' 하향식 의사소통방식을 애용해왔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의 구조와 방식이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방법에 대한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리더십이 구성원을 정책의 동반자로 여기느냐, 혹은 정책의 대상자로 여기느냐 하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혁신위의 첫 행보가 될 '미래창조스쿨'의 출범이 구성원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상향식 정책의 결과인 것처럼 일컬어지고 있는 미래창조스쿨의 설립이, 그 결정과정에 있어선 명백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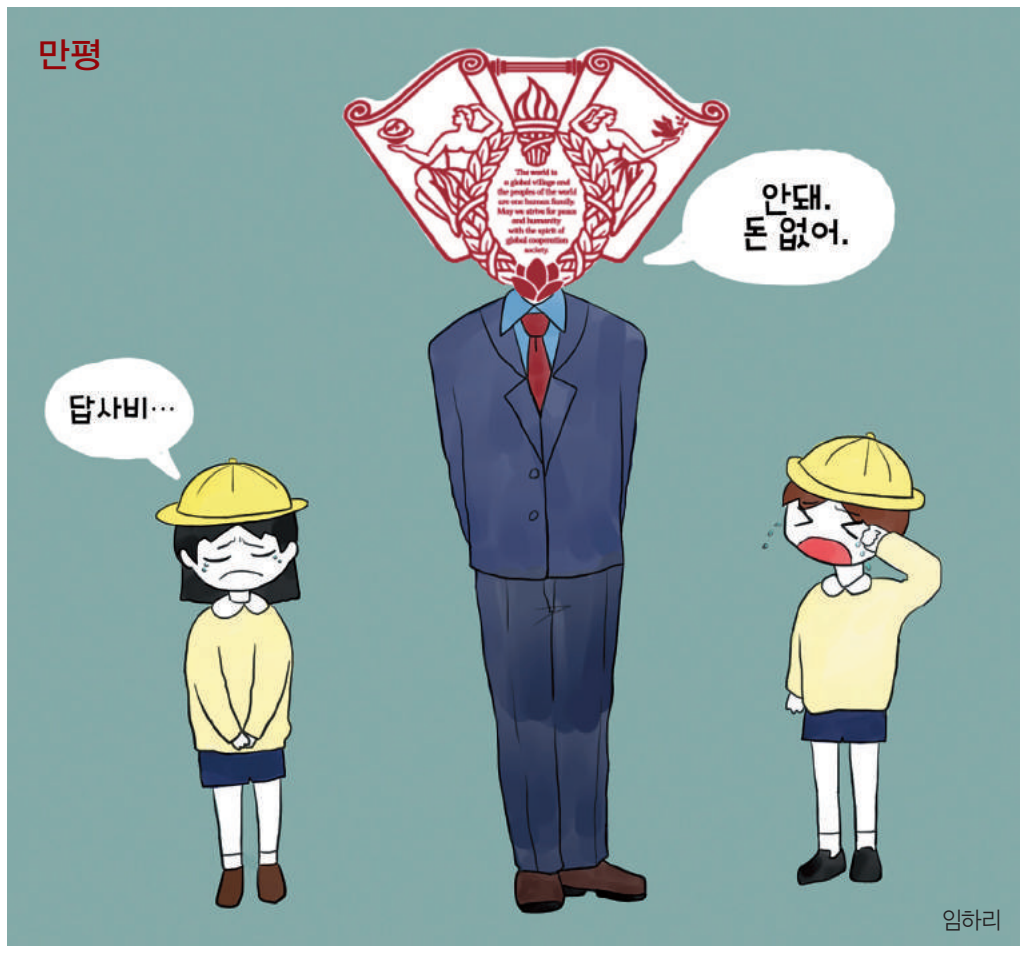
대학본부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미래창조스쿨이 '지난해 미래대학 리포트 2015에 나타난 학생들의 절규와 희망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구성원은 이 미래창조스쿨에 대한 소식을 학내가 아닌 외부 광고와 일간지 보도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접했다. 구성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책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대상자인가'라는 의문이 틈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의사소통방식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구성원 간에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학 측이 어떤 테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 대학 측은 구성원이 묻는 것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인 답변을 제공하다가, 애초 대학 측이 임의로 설정했던 시한이 임박하면 '미룰 수는 없으니 일단 진행한다'는 식으로 안건을 시행하는 것이 그간 대학본부 측이 보여 온 의사소통프로세스의 주된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번 미래창조스쿨의 설립도 이 익숙한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다.

그 간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기에 이 사업에 대한 온갖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다. 사업의 기획의도와 상세 운영안에 대한 검토는 차치하더라도, 대학 측이 내놓은 사업 일정부터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번 학기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이라는 이 사업 일정은 과연 적정한가? 11월부터는 커리큘럼 확정이나 교강사 모집과 같은 실질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텐데, 그것을 남은 두 달 동안 충분히 검토하며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우려들이 모여, 구성원의 불안을 형성한다.

새로 도입되는 정책과 시스템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정 기간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편함이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은 항상 구성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향식 의사결정 아래 도입된 정책과 시스템은 시행착오 과정에서 구성원의 불안과 불만과 반발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은 공동체 통합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성원 간 이해의 토대를 바탕으로 테제를 던지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야만,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을 함께 완성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 주의 주제 - 단과대학 자율예산

자율예산 삭감, 대학의 책임 방기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프라임 사업에 큰 예산이 걸려있는 데다, 선정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지난해 12월 프라임사업 참가 당시, 총학생회와의 면담에서 대학본부 측이 발언한 내용이다. "재정수입 확충 안이 없는 상황에서 15억 원 학생경비 지원약속은 불가능하다". 지난 1월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 총학생회가 특별교부금 15억을 요구한 것에 대한 서울캠퍼스 한균태 부총장의 답변이다. '학교에 돈이 없어서'라는 식의 호소는 대학본부가 사업진행 강행에 위력 있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번 '자율운영예산 삭감' 논란에서 또한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동결된 등록금수입과 물가상승을 근거로 긴축재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수익능력을 갖춰 최소한의 교육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다. 정부는 교사교지 면적, 교원 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현황 등의 기준으로 대학설립을 제한해, 대학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교육여건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대학의 수익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인다. 하지만 우리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기준액의 29%에 그치며, 자산전입금이 수년째 0원인 것을 보면 기준액 만큼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기란 요원하다. 한편, 수익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에서 학교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은 작년도 기준 7억 원이다. 교원퇴직금(약 13억 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심지어 경희제약은 2013년 35억 원의 적자를 끝으로 사업을 접었다. 기부금 또한 2013년 약 282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약 139억 원으로 2년 새 반 토막 났다.

본부는 기존의 대학행정 방식이 재정위기에 일조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잊혀진 Finance21을 비롯해 반복되는 재정 거버넌스 개편은 이번 해 역시 진행된다. 미래정책원에 있던 예산권이 재정경영원으로 옮겨간다. 필요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던 것에서, 이번 개편 이후부터는 재정상황에 맞춰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산이다. 재정부총장도 선임될 예정이다. 수익능력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90년대 기자재로 공부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대학본부의 책임방기다. 연례행사가 사라지고, 수업용 기자재가 부족한 수준을 넘어 문과대학 등 일부 단과대학에선 재정난으로 '학과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추가예산이 투입되기 전까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대학본부는 진정 이를 모르는가.

더 좋은 교육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의 수익능력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익능력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학교의 수입상황에 관계없이 대학다운 교육환경이 담보돼야 대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창업 권하는 사회

세시봉

기호웅 〈뉴스총괄팀장〉

오랜 청년실업의 결과인지 아니면 창업이 새로운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인지, 사회는 청년들에게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기업에서 진행하는 창업 관련 공모전의 수가 늘었으며 언론에서도 창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이런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다. 창업과 관련된 교과목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학교 주최로 진행하는 관련 행사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도 어려운 취업현실에 한계를 느끼고 점차 창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

이전부터 우리 신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청년사업가들을 여러 차례 소개했다. 플리마켓을 통해 새로운 의류시장을 개척한 '옷장을열면', 참신한 가죽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얻은 '테이커스',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던 과일에 집중한 '청춘과수원', 스테이크를 푸드트럭에서 판매한 '스테이크아웃' 그리고 청년은 아니지만 이번 신문에 소개한 '병윤네 무인마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익숙한 소재들을 참신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발견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관심과 열정의 결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창업하기에 좋은 나라일까? 성공한 청년사업가의 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다. 퇴직을 앞두는 아버지 세대들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 창업에 관심을 갖는다. 초기자본이 없는 청년들과는 달리 퇴직금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출발로 사업을 시작하는 기성세대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결과는 눈에 띄게 늘어나는 치킨집과 카페 수만큼이나 비극적이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그들의 퇴직금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닐 것이다. 청년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대에게도 세상은 창업을 권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무리하게 창업의 벼랑 끝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빛이 강한만큼 그림자도 짙다. 사람들이 창업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했을 때 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로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은 자칫 창업실패로 인해 앞으로 수년을 발목 잡힐까 걱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자의 아버지도 지난 7월, 31년간 몸 담갔던 회사를 나왔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의 의무감은 이러한 위험조차 감수하게 한다. 기성세대도 우리 만큼이나 절박하다. 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 세대는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준비하고 자식세대는 취업이 안돼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창업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실리콘벨리의 성공은 단 한 번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안전망을 확보한 토대위에서 가능했다. 무분별하게 창업만을 권하기 보다 우리나에 왜 성공한 창업사례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사회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망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도입된 '독립연구' 수강생의 72.7%가 '매우만족'

미디어 여론동향 2016. 8. 15 ~ 9. 2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17일 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201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양 캠퍼스서 열려/2016.8.17) 서울캠 11개 대학원에서 석사 716명, 박사 114명이, 국제캠 7개 대학원에서 석사 270명, 박사 70명이 각각 학위를 받았다. 단과대학에선 서울캠 890명, 국제캠 876명 등 총 1,766명이 졸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변경되는 국제캠 기숙사 출입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정원 출입방식이 손등혈관인식기로 바뀐다네요'라는 글(#경희숲_15966, 2016.8.20)의 글쓴이는 '학생증은 못 쓰고 생체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시스템에 손등을 등록해야 한다는데 동의 안 하면 입사 불가인 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114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그 돈으로 학식이나 바꿔주지',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반강제적인 동의, 등록 3일 전에야 일방적인 통보, 너무 어이없네요', '와 정말 신기하고 돈 아깝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올해 처음 도입된 후마니타스칼리지 '독립연구' 교과에 대해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독립연구, 기존 수업 한계를 넘어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8.16) 강의평가 결과 수강생의 72.7%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신설된 독립연구는 학생들이 개인 혹은 팀으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담당교수를 섭외하고 한 학기 동안 탐구한 뒤 평가를 받는 과목이다. 지난학기 177명의 학생과 62명의 지도교수가 참여해 총 77개 과제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교양, 전공을 심화탐구하거나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을 하기도 했다. 창업 가능성을 탐구한 학생도 있었다. 참여 교수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2016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의 순위가 44단계 상승했다.(경희의 학술 역량 지속 상승/대학 홈페이지 Focus, 2016.8.29) 상해교통대 세계대학평가는 평판도 등 주관적 정성평가를 배제하고 학술 역량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우리학교의 순위는 331위로, 국내 종합대학 순위로는 5위다.

4학년 주축 선수들이 돌아온 경희대 농구팀이 성균관대를 상대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다.([대학리그] '역전에 역전' 경희대, 성균관대 상대로 진땀승/점프볼, 2016.9.1) 1일 열린 2016남녀대학농구리그 경기에서 경희대는 성균관대를 69-66으로 이겨 단독 7위에 올랐다.

1,2쿼터, 경희대가 먼저 기선을 잡으며 경기를 시작했지만 3쿼터에 리바운드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제공권을 잡은 성균관대에 역전 당했다. 4쿼터, 경기를 뒤집은 경희대는 경기 종료 13초를 남기고 자유투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굳혔다. 부상으로 인해 빠져 있던 맹상훈과 최승욱은 이날 복귀전을 치르며 각각 8득점 4리바운드, 7득점 2어시스트 등을 기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500위 내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 올해는 처음으로 350위 내에 들었고, 종합대학 순위도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